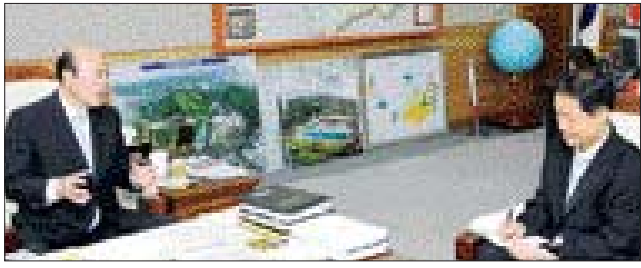


광주의 미래 산업이 이끈다

9 박 광 태 광주시장 인터뷰

“금호전기 등 LED 대기업 광주 온다”



인터뷰 = 김주정 경제부장

광(光)산업은 현재 자동차·가전과 함께 광주 경제를 이끄는 3대 핵심산업이다.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지식기반 산업이기도 하다. 선발 업종인 자동차와 가전도 이제 광산업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다. 요즘 광주에선 광기술과 정보통신·바이오 테크놀로지·문화콘텐츠·디자인 산업 등을 한데 버무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는 작업이 한창이다. 첨단 산업 불모지에서 지난 2000년 지역특화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광산업이 광주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광산업의 발전기지가 된 광주첨단산단은 올 연말 R&D특구로 지정돼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게 된다. 10년 넘게 광산업 발전에 열정을 바쳐온 박광태 광주시장을 만나 향후 과제와 전망을 들어봤다.

-광산업 10년의 성과 가운데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은 무엇인가. 또 반성해야 할 대목은 없나.

▲광주가 국제적인 광산업 클러스터로 부각됐다는데 의미가

“

광주 세계 톱 3 광산업도시 부각

지난해 327개사 매출 1조 3천억

고용인원만 6천여명 달해

”

크다. 10년간 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온 결과다.

지난 2000년부터 8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5천675억원을 투입한 결과, 누적 매출액이 5조2천452억원에 달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1999년 매출액은 1천100억원, 10년만인 지난해 1조3천억원으로 1천%가 늘었고 기업체 수도 47개사에서 327개사로 500%가 넘게 생겨났다. 그만큼 고용 인원도 늘었다. 지난 1999년 1천900명으로 파악된 광산업 종사자들은 벌써 6천명에 달할 정도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클러스터 내 300여개의 광산업체중 50% 이상이 광부품 위주의 소규모 기업이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열악한 업체들도, 경쟁력 강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광관련 전문 인력들의 유출을 막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광산업 육성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함께 지역특화산업을 시작한 대구(섬유)나 부산(신발)은 기반이 갖춰져 있었으나, 광주는 맨땅에 삽질부터 해야 하는 처지였다. 특히 국회의원이던 시절 광산업 1단계 사업비 5천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광산업이 무엇인지, 왜 광주에서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도저히 설명이 안 돼서 회의 도중 상대방 의원을 불러내 물리력까지 쓰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이 항상 뒷받침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힘들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광주 광산업은 국민의 정부가 시행한 지역 특화 산업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성공한 산업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기간산업으로 성장했다. 성공 비결을 말해달라.

▲국비 등 광산업 육성자금 대부분을 인프라 구성에 투입한 것이 오늘의 성공을 이끈 것으로 본다. 광기술원이나, 고등광기술연구소 등 광산업 연구개발·지원 기관을 유지하고 최첨단 설비를 갖춘 결과, 첨단 산단은 세계에서 가장 광 연구장비와 생산설비가 집적화된 곳이 됐다. 광산업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의 경우 대학에서 광산업을 시작하다 보니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이 동떨어져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산업을 선도할만한 대기업을 필요하다며 기업유치를 추진해 왔다. 성과는 어떤가.

▲국내 굴지의 조명업체인 ‘금호전기’가 조만간 광주에 LED생

산설비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카메라 모듈, LED등을 생산하고 있는 LG이노텍과 함께 쌍두마차 체제를 갖출 것이다. 독일의 유명기업도 광주 광클러스터 투자를 고려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LED 조명업체인 엔하이테크, 서울반도체, 태양광 전문업체인 서울마린, LED칩 생산업체인 오리엔텍 등도 광주에 둠지를 튼 이후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LED 등 광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트렌드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서는 광산업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의 대형화는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LED 시장의 경우 국가성장동력으로 추진되면서 향후 시장 전망도 밝아 수도권과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는 업체와 지역 업체간 인수 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지역업체와 수도권 등 타지역 업체간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다. 요즘 M&A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평가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기업간의 인수합병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광산업진흥회가 나서 지역 내 기업 간 컨소시엄 형성을 통한 마케팅 활로를 개척토록 하고, 경쟁력 있는 역외 기업과의 ‘윈윈’할 수 있는 인수 합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광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미래의 광산업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말해달라.

▲광주는 광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광산업 세계 톱 3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광산업 분야의 글로벌 R&D 거점으로 우뚝 서면서 오는 2014년에는 광관련 기업체 수가 450개에 이르고

“

미래 책임질 유일한 지식산업

올 연말 R&D 특구 지정

또 한번의 광주 도약 꿈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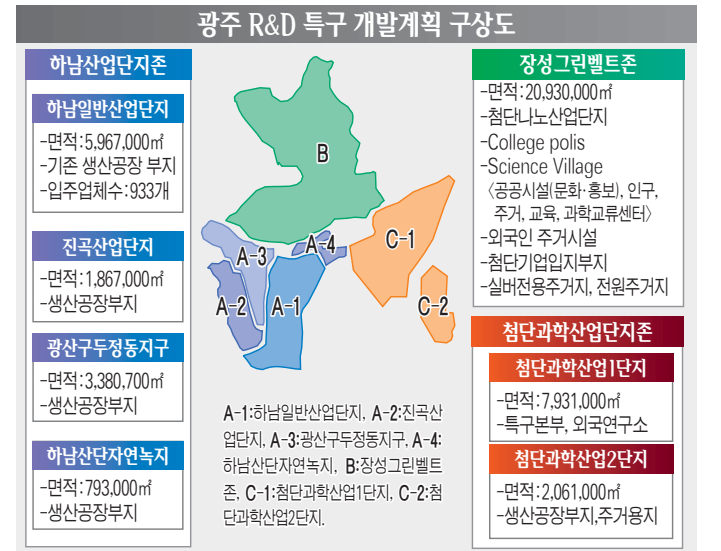
”

2만여명의 고용 인원이 6조5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명실 상부한 지역 경제의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뒷받침 하도록 그동안 축적된 인프라와 광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융·복합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광산업 육성을 계기로 광주시의 산업육성 노하우도 크게 업그레이드했다고 칭찬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노하우가 이후 첨단 산업 유치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사실이다. 이제 광주지역 대학교수들이나 관련 공무원, 업계 관계자들은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유망한 ‘클린 디젤’ 산업이 대표적인 예다. 타지역에선 일본 등이 선점한 하이브리드 카를 붙잡고 있지만, 우리는 클린 디젤을 틈새시장으로 봤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이 있느냐”며 깜짝 놀라고 부러워하고 있다. <끝>

/정리=김지을기자 dok2000@/사진=최한배기자 choi@



■ 광주 R&D특구 어떻게 개발되나

하남산단·장성그린벨트 존 등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

정부의 광주 연구개발(R&D) 특구 육성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된 지식 경제 기반을 국토 서남권으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연구기관이 집적화된 광주를 R&D특구로 지정함으로써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추진할 광산업 등 선도산업 프로젝트와 시너지 효과 창출로 호남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광주시의 R&D 특구 개발 계획도 이같은 핵심 개념을 감안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그동안 축적된 광산업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래 핵심 융·복합 기술을 개발,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함으로써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전조 기지로 육성해 ‘지속적인 지방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첨단과학산단단지 1단지(793만1천㎡)와 2단지(206만1천㎡)를 포함한 첨단과학산단존에 광기술원·ETRI·전자부품연구원·한국생

기술연구원·고등광기술연구소 등 이미 조성된 광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비롯, 외국인 연구소를 집적화시켜 연구 연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특구 추진기확단을 설치, 연구 개발의 상품화 및 핵심 융합기술 재투자 등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국제비즈니스파크를 조성하고 해외 클러스터와의 교류 협력, 해외기업 및 연구소 유치 여건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환경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장성그린벨트존(면적 2천93만㎡)에는 첨단노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 기업을 입주시키는 한편 갈리지 폴리스와 사이언스빌리지 등을 조성, 고급인력의 정착을 유도하며 세계 최고의 두뇌가 양성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갈리지 폴리스는 국제적 석학을 초청해 첨단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교류의 장으로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 사이언스빌리지다.

광주시는 특구로 지정됨에 따른 경제 효과만 1조4천억원에 이르고 1만6천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특구 육성 계획이 완료되는 4년 뒤에는 지난 2005년 1천147개인 입주 기업이 2013년 2천235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백두산

무인 + 인질 직행
7.25 ~ 8.15

1681226-6076